

이제는 배우자도 임대하는 세상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 작가의 로맨스 스릴러

트렁크

김려령 지음, 창비, 1만7000원

소설 '트렁크'는 '배우자 임대 서비스'라는 도발적인 설정에서 출발한다. 김려령 작가는 생동감 넘치는 대화와 질주하듯 뻗어 나가는 문장으로 '기간제 아내'의 결혼생활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올해 스물아홉 살의 '인지'는 결혼정보업체 웨딩라이프의 비밀 자회사인 NM(new marriage) VIP팀에서 입사 6년 차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업무는 VIP 회원의 기간제 부인인 FW(field wife)가 되는 일. 대학 졸업 후 출판사 면접에서 떨어진 날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입사 제의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인지는 NM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하지만 취업의 어려움으로 망명하듯 NM에 입사한다.

네 번째 결혼을 마친 인지는 전남편으로부터 재결합 신청을 받고 다섯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종전의 결혼생활에 비해 순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인지 앞에 '임태성'이라는 남자가 등장한다.

절친한 친구인 '시정'의 부탁으로 휴가 기간 중 한 번 소개팅을 가졌을 뿐인데 임태성은 자신을 단칼에 거절한 인지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호기심을 품고 스토킹을 시작한다.

NM 보안팀은 인지가 계약 남편과 함께하는 집까지 집요하게 찾아온 임태성을 제압한 뒤 격리시키는데...

정상성에 도전장을 내미는 과격적인 로맨스 서사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몰입감을 높이는 이 책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새롭게 발견되는 리마스터판에서는 표현과 대화를 한층 정교하고 다부지게 다듬었다. 임유이 기자 iye@skyedaily.com

1% 앞선 생각이 억만장자를 만든다

세상을 바꾼 '비즈니스 아이콘 21인'의 공통점

생각의 속도가 부의 크기를 바꾼다

셀리 퍼시 지음, 신웅우 옮김, 동웅북스, 1만8800원

전기차와 우주산업 등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만 도전했던 일론 머스크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저커버그와 아마존에서 블루 오리진 창립까지 매년 어려운 일을 해낸 제프 베이조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억만장자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을 억만장자로 만든 비결이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따로 있다. 바로 생각의 속도다.

저자는 포브스닷컴 리더십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현대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아이콘들을 심층 연구했다. 그리고 결국 생각의 속도가 부의 크기를 바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생각해 빠른 선택을 피했다. 나아가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출한 재능이 있거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인물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을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의 방향에 집중하며 아이디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방향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으려면 생각의 속도가 먼저다.

남들과 비슷한 속도로 떠올린 생각은 빛나지 않고 생각의 속도가 느리면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밟으며 나아갈 뿐이다. 따라서 단 1%라도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이 책에서는 1% 앞선 생각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운 비즈니스 아이콘 21인을 살펴본다. 그들의 실패와 성공 스토리에서 찬란한 혁신의 순간을 만나 보자.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테일러 스위프트 2년간 공연 수입 3조 원

세계 순회콘서트 티켓 수입 '혁' 역대 팝스타 공연 중 최고 기록 149회 공연... 팬 1016만 명 몰려 멜버른 콘서트 9.6만 명 신기록

인기 절정의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난 2년간 콘서트 티켓 총수입이 거의 3조 원에 달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이 9일(현지 시간) 전했다.

NYT는 스위프트의 공연 제작사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링'이 최초로 수치를 공개했다면서 전날 마감된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 149회 공연의 총 티켓 수입이 20억7761만8725달러(약 2조9745억3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북미를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콘서트에는 총 1016만8008명이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한 평균 좌석당 티켓 가격은 약 204달러(약 29만2000원) 수준이다.

에라스 투어 중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린 공연은 올해 2월16일 호주 멜버른 공연으로, 9만6006명이 직접 관람했다. 도시별 최대 관객은 영국 런던 웹블리스타디움에서 8일 동안 열린 공연에 총 75만3112명이 참석한 것이다. 이는 미국 시애틀의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 수입은 공연 관련 수익의 일부에 불과하며, 공연장에서 판매하는 티셔츠와 기념품 등의 판매 수익 역시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출시된 256쪽 분량의 콘서트 사진집만 해도 판매 첫 이틀 동안 81만4000부가 팔려나갔다.

티켓 판매 회사인 빅토리 라이브에 따르면, 최근 마지막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흘간 열린 공연의 재판매 티켓 평균 가격은 296달러(약 42만6000원)였다. 앞서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티켓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난 2년간 콘서트 티켓 총수입이 2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공연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지난 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에서 사진 찍는 팬들(적은 사진). AFP=연합뉴스

수입은 지난해 12월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돼 역대 팝스타 공연 중 최고치로 기록될 바 있다.

이번에 나온 총결산 수치는 1년 전의 추정치를 자체 경신한 것으로, 역대 2위로 꼽히는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공연

수입과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AP는 공연시장 분석회사 폴스타의 집계치를 인용해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수입이 약 22억 달러, 콜드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Music of the Spheres) 투어 수입이 약 11억4000만 달러(약 1조6324억8000만 원)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콜드플레이의 공연은 2022년 3월부터 시작돼 156회 진행됐으며 내년까지 이어진다.

폴스타의 추정치에 따르면 콜드플레이는 해당 공연으로 티켓 총 1030만여 장을 판매해 티켓 판매량으로는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판매량(약 1000만 장)을 조금 앞질렀다.

폴스타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상위 100개 투어 콘서트의 평균 티켓 가격은 131달러(약 18만8000원) 수준이었다. 스위프트의 공연 티켓이 거의 3배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다.

스위프트는 약 2년간의 세계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팝 무대의 새 역사를 썼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밑바탕에는 그의 강인한 체력이 있다.

스위프트는 작년 12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투어를 시작하기 전 6개월 동안 체력을 다지기 위해 운동했다면서 매일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면서 콘서트 곡(setlist)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불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연 기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위프트는 많이 버는 만큼 통 크게 베푸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미 연예매체 피플지는 스위프트가 지난 2년간에 걸쳐 에라스 투어에 참여해 일한 모든 사람에게 총 1억9700만달러(약 28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나눠 줬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공연 수입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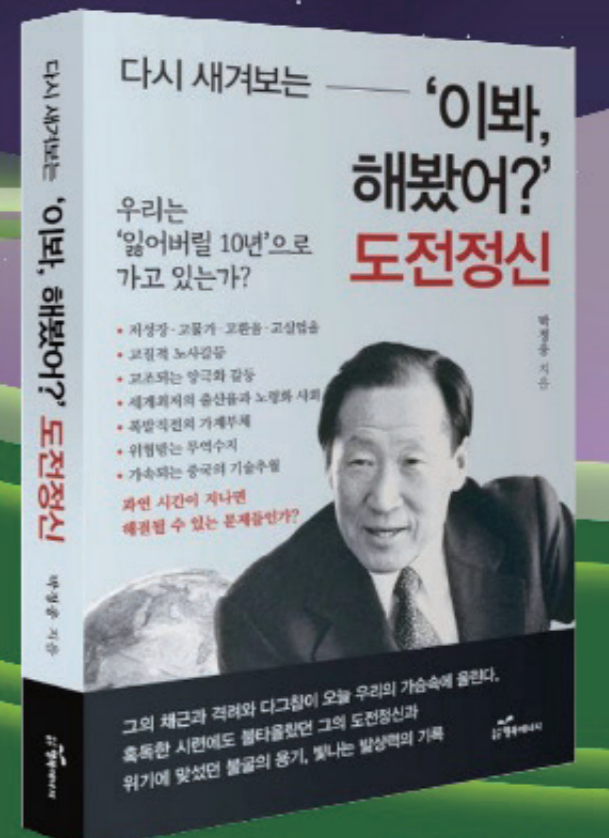
거인의 발자취에 담긴 가치 재발견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창조와 혁신의 화신'

모두 안 된다던 울산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박정웅 지음 · 행복에너지
값 25,000원